

# 미디어 리터러시의 기초와 핵심: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사고와 실천을 어떻게 해야 할까?



Center For Media Literacy Research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https://hs-jeong.net> <https://cmlr21.org>



정현선

경인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교육전문대학원 디지털미디어교육전공 주임교수

[hyeonseon@ginue.ac.kr](mailto:hyeonseon@ginue.ac.kr)

# 1. 얼마나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 퀴즈로 시작하겠습니다.

<https://forms.gle/xeZrTn2tUVdEVZTT6>

1. 지난 10년간 사고사망자 수의 변화는? \*

-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 유사한 수준을 유지해 왔다
-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2.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를 OECD국가들의 세율과 비교하면? \*

- 높은 편이다
- 비슷한 수준이다
- 낮은 편이다

3. SNS에서 사진과 이름을 흡쳐 타인 행세를 할 시 형사 처벌 가능하다 \*

- 사실이다
- 사실이 아니다

4. 학교들은 학교 특별 전형으로 의대를 갈 수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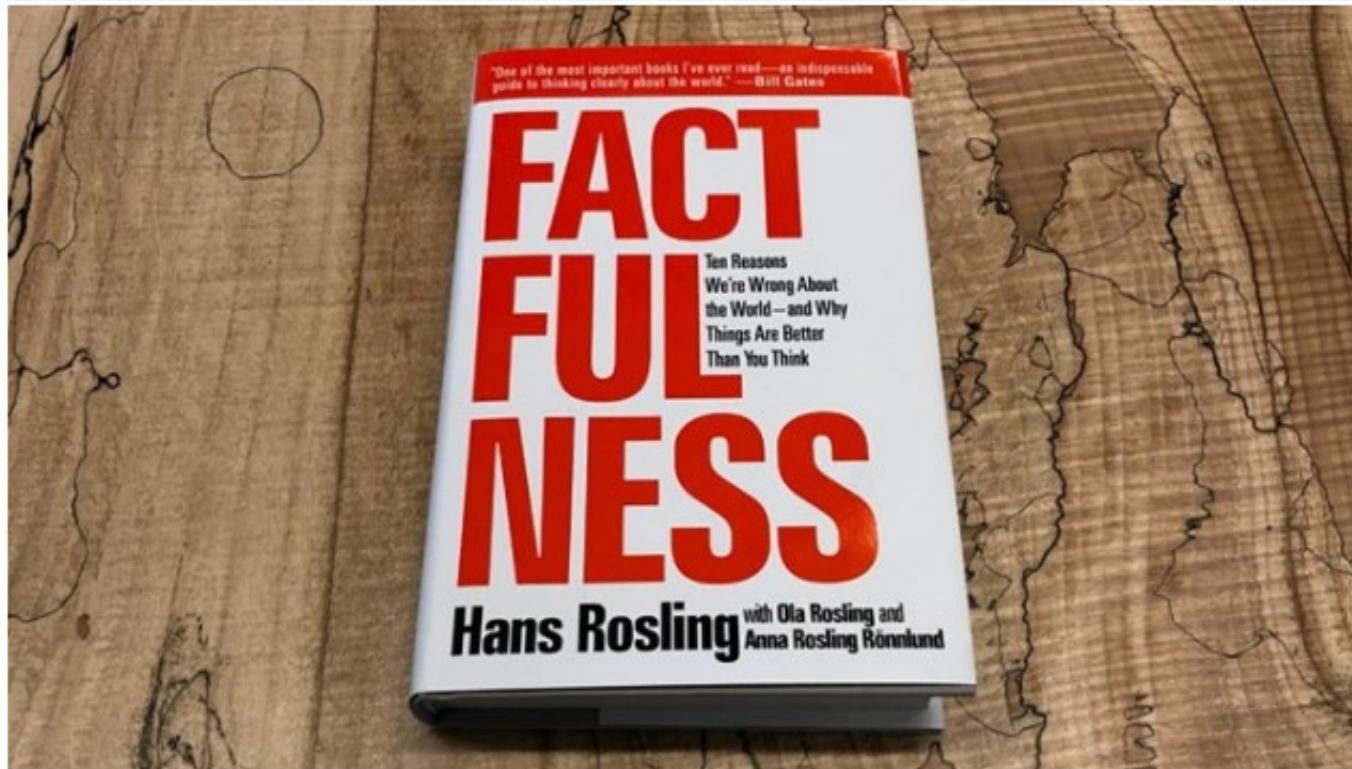
- 사실이다
- 사실이 아니다

5. 우울증 약 먹으면 취업에 불이익이 생긴다 \*

- 사실이다
- 사실이 아니다

# 우리는 세상을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Factfulness Te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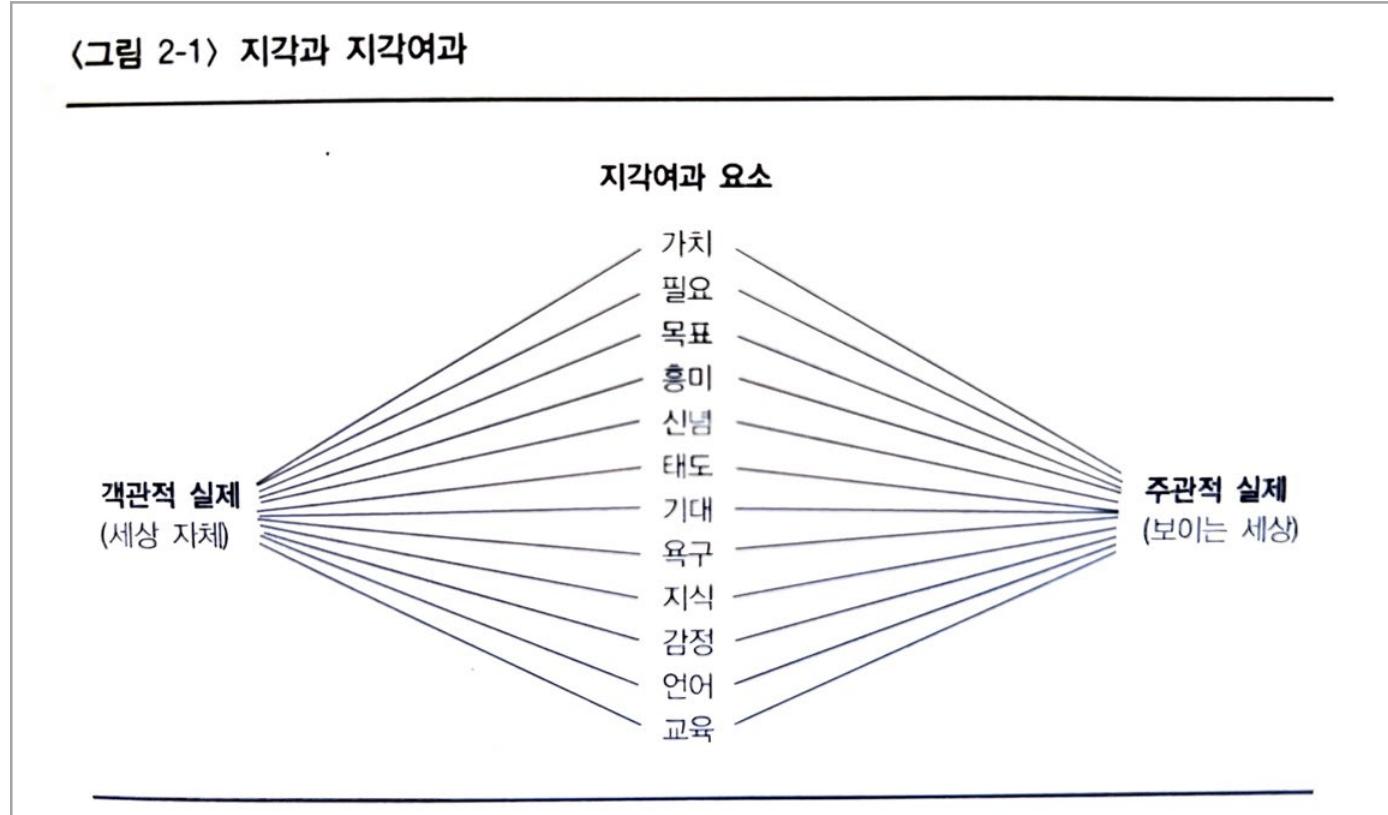
⌚ 2018. 8. 6. 18:32



- <https://kuduz.tistory.com/1075>

# 여러분의 점수는 몇 점으로 나타났나요?

- 다음 그림의 어떤 ‘필터’가 여러분의 정보 판단에 작용했을까요?
- 보다 객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 나의 ‘필터’를 어떻게 성찰할 수 있을까요?



# 미디어는 영향력 있는 말을 하는 주체입니다.

## - 미디어 리터러시가 필요한 이유!

-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가 하는 ‘말’(담론)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미디어는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말을 하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 미디어는 특정한 사람들, 대상, 사회적 현상, 사건 등에 대해 의도적으로 구성된 것이며, 다르게 구성될 수도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또한 우리는 각자의 ‘필터’를 갖고 정보를 받아들이고 세상을 인식하는 불완전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자신의 지각 여과에 영향을 미치는 필터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미디어 정보의 사실 여부 및 진위 여부를 해당 분야의 깊이 있는 전문적 지식 없이 가려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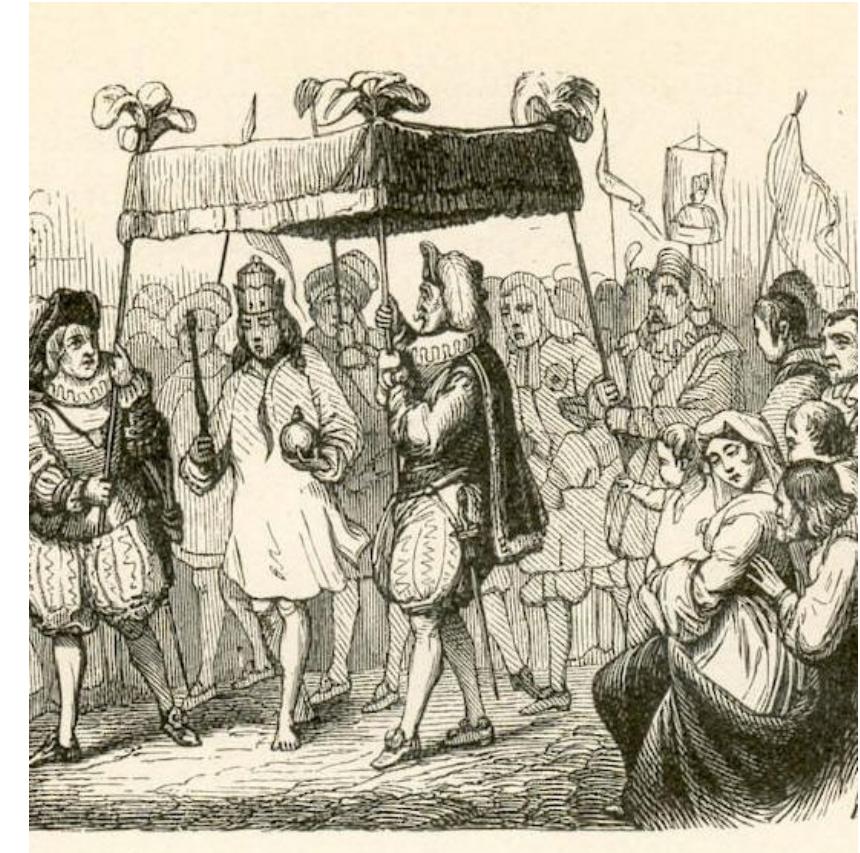
미디어 정보의 팩트 체크는 중요하고,  
다양한 출처에서 다양한 정보를 충분히 검토해  
사건/대상/사람(들)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팩트 체크가 곧 미디어 리터러시는 아닙니다.**

## 2. 정보 문해력(Information Literacy)

- 어느 왕국에 새 옷을 좋아하는 호화로운 임금님이 살고 있었다. 왕실에서 근무하는 두 명의 재봉사가 임금님을 만난 자리에서 근사한 옷을 지어주겠다고 하였으나 이들이 지어준 옷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옷"이었다. 그렇지만 임금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옷은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옷이었다.
- 임금님이 이 옷을 입고 길거리를 행진하자 사람들은 처음에는 임금님을 칭송하였다. 그렇지만 한 아이가 "임금님이 벌거벗었다"는 **진실**을 말하면서 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 이 작품은 수십 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었다.

<벌거벗은 임금님(원제: 임금님의 새 옷)>(안데르센, 1837)



# 정보 리터러시와 미디어 리터러시의 차이!

-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에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것은 작품 속 진실을 이해하는 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
- 작품 속 사건의 진실을 이해하기 위해 정보를 사실과 의견으로 구분하고 다양한 출처에서 정보를 수집해 이해하는 것만으로 충분한가?
- 만약 작품 속 사건에 대한 미디어 보도가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그것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위해 **팩트 체크** 이외에 무엇이 더 필요할까?

# 가짜 뉴스 판별법

(국제도서관협회)



## 1. 출처를 고려하세요.

사이트, 사이트의 미션, 연락처를 알기 위해서는 해당 뉴스 내용에서 빠져 나와 다른 곳을 클릭해 보세요.

## 2. 기사 제목 이상을 읽으세요.

머리기사는 클릭을 유도하는 터무니 없을 수 있어요. 기사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요?

## 3. 기자를 확인하세요.

기자를 빠르게 한번 찾아보세요. 믿을 만 한가요? 실제로 존재하는 기자인가요?

## 4. 근거자료는 정확한가요?

다른 링크도 확인하세요. 주어진 정보가 실제로 그 뉴스를 뒷받침하는지 살펴보세요.

## 5. 기사의 날짜를 확인하세요.

오래된 내용을 다시 기사화한 것이 최근의 사건과는 연관성이 없을 수 있어요.

## 6. 농담인가요?

너무 이상하다면 풍자일 수 있어요. 풍자를 위한 글인지 확인하기 위해 해당 웹사이트와 기자에 대해 알아보세요.

## 7. 여러분 자신의 선입견을 확인하세요.

여러분 자신의 신념이 판단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세요.

## 8.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사서에게 물어보거나, 팩트체킹 웹사이트에 문의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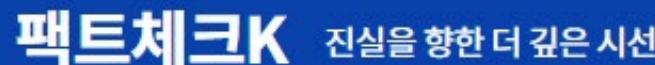
# 한국의 팩트체킹 웹사이트



<https://factcheck.snu.ac.kr/>



<https://factchecker.or.kr/>



<https://news.kbs.co.kr/news/list.do?mcd=1032#1>



<https://mnews.jtbc.joins.com/factcheck/>



<http://www.newstof.com/>

[예시]

‘사춘기의 반항’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알아본 미디어 정보의 사실 여부, 신뢰성, 타당성 등에 대한 비판적 검토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이 과정에서 정보 리터러시와 미디어 리터러시는 어떻게 작용할까요?

# UC Berkeley Library: Evaluating resources

## 버클리대학교 도서관의 웹 정보 평가 가이드

<https://guides.lib.berkeley.edu/c.php?g=83917&p=539735> 도서관이 담당해야 할 디지털•정보 리터러시

어떤 종류의 자료이든,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십시오.

1. **권위**(Authority): 저자는 누구입니까? 그들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2. **목적**(Purpose): 해당 자료는 왜 만들어졌습니까? 의도된 독자는 누구입니까?
3. **출판 및 형식**(Publication & format): 출판한 곳은 어디입니까? 어떤 매체로 출판되었습니까?
4. **적합성**(Relevance): 해당 자료는 여러분의 조사와 연구에 적합합니까? 어느 정도 범위에서 적합합니까?
5. **출판일**(Date of publication): 언제 작성되었습니까? 정보가 업데이트 되었습니까?
6. **인용 및 참고문헌의 기록**(Documentation): 정보의 출처를 인용했습니까? 그들은 누구를 인용했습니까?

#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을 경계합니다.



-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신념을 확인하려는 경향성.  
인간의 지각은 불완전합니다.
- 확증 편향은 인간이 그들의 환경을 인지할 때, 자신에게 영향을 주거나 자신이 기대하는 것과 일치하는 것만 인식하는 경향인 선택적 인지 또는 선택적 인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 외부 세계의 정보를 전체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본인의 기준 인지 체계와 부합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현상입니다.
- 허위거짓 정보의 생산과 확산은 확증 편향이나 선택적 인지의 예에 해당합니다.

공유하기 전에  
한번 더 생각하세요!



Before you...



# THINK!

**T** = Is it True?  
**H** = Is it Helpful?  
**I** = Is it Inspiring?  
**N** = Is it Necessary?  
**K** = Is it Kind?



# 디지털 리터러시 가이드 (디지털 정보 리터러시)

- 인터넷에서 믿을 만한 정보를 찾는 6가지 방법 (영국 도서관협회)



<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793>

도서관의 디지털 정보 리터러시는 이런 콘텐츠를 구축하고 학교 교육과 평생 교육을 지원해야 합니다.

# 올바른 자료 검색에 시간과 공을 들여야 합니다.

올바른 검색은 디지털 리터러시의 알파이자 오메가이다. 인터넷에서 양질의 정보를 찾기 위해서 알아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 복수의 검색 엔진을 사용해 개별 엔진의 맞춤형 정보 제공 알고리즘 (이른바 '필터 버블')을 무력화하고 정보 편식을 최소화한다.
- ▷ 검색 전략을 다변화해 여러 소스를 참조한다.
- ▷ 문자 뿐만 아니라 시청각 자료를 폭넓게 활용하여 정보를 검색한다 (이미지 검색, 소리 검색 등)
- ▷ 추후에 판별할 수 있게끔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저장한다.

## 계획 세우기

검색을 진행하기 전에 다음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본다.

- ▷ 무슨 내용을 찾고자 하는가?
- ▷ 어떤 형태의 자료가 필요한가? (통계? 논문? 신문기사?)
- ▷ 현재 어떤 자료를 갖고 있는가?
- ▷ 얼마나 많은 정보가 필요한가?

디지털 정보 리터러시를 모든 시민의 보편적 역량으로 기르기 위해, 도서관이 무엇을 어떻게 구축하고 지원해야 학교 교육과 평생 교육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작은도서관들이 지역 사회 및 학교와 어떻게 연계해야 할까요?

도서관의 디지털 정보 리터러시 교육은 언론진흥재단, 지능정보사회 진흥원, 시청자미디어재단/센터, 지역미디어센터의 미디어 교육과 어떻게 차별화되어야 할까요?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비판적 사고만이 아니라,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사고와 실천이 중심이 되어야**  
미디어 리터러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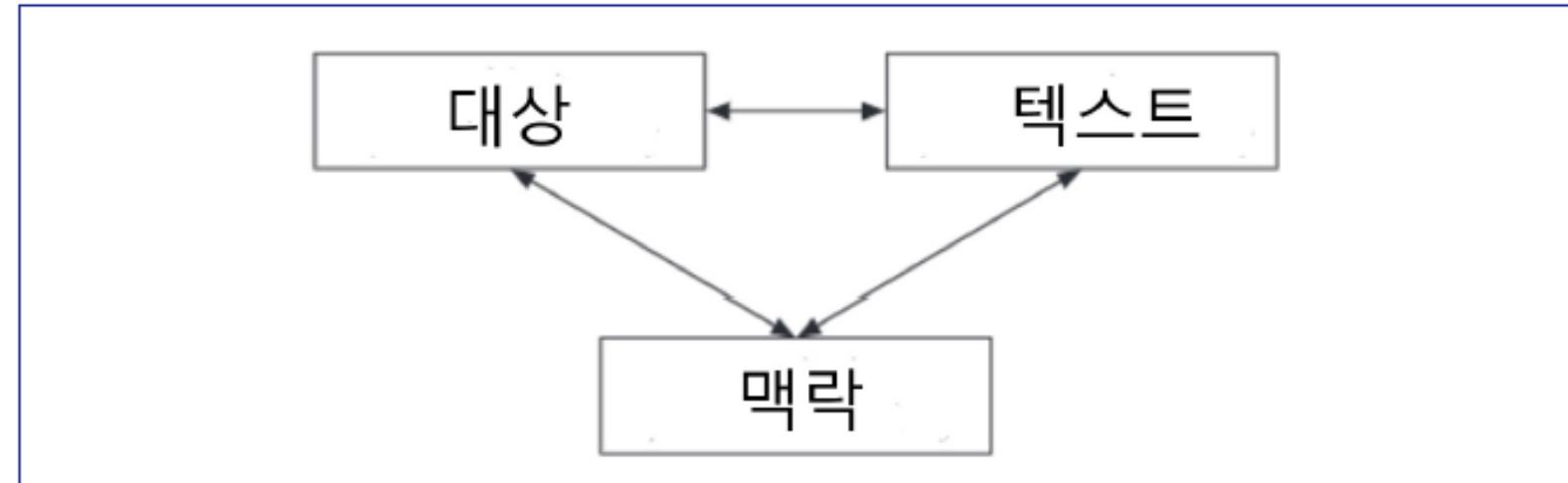
# 미디어의 개념



<https://bit.ly/3u6xsdt>

- 현대사회에서 '미디어'는 우리가 살고 있는 (ㄱ) 사회 공간의 맥락, (ㄴ) 우리가 접하는 대상이나 기기, (ㄷ) 의미를 담은 텍스트나 내용물 등 세 가지 차원의 뜻을 지님(Courtois, Merchant, Paulussen & Marez, 2011:403~405)
  - 미디어는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의 온라인 공간(ㄱ) 사회 공간의 맥락으로서 미디어), 태블릿이나 스마트폰과 같은 기기(ㄴ) 우리가 접하는 대상이나 기기로서 미디어), 그림책, 뉴스, 광고,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문자메시지 등의 세 가지 차원을 뜻함 (ㄷ) 의미를 담은 텍스트나 내용물로서 미디어). 이 세 가지 차원의 미디어 모두 사회적, 역사적 맥락 속에 놓여 있음.

| 그림 4 | 미디어의 세 가지 의미 (Courtois, Merchant, Paulussen & Marez, 2011)



# ‘미디어 교육’과 ‘미디어 리터러시’

- 미디어 교육은 미디어에 대해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임.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 교육의 결과물로서, 학습자들이 얻는 지식과 역량을 의미함(Buckingham, 2004). 또한 미디어 리터러시는 사회구성원의 필수 역량으로서,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맥락에서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유동적이고 진화하는 개념임.

미디어 교육	미디어에 대해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
미디어 리터러시	미디어 교육의 결과로 학습자들이 얻는 지식과 역량

- 디지털 미디어 환경이 보편화됨에 따라 ‘미디어 교육’이라는 용어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혼용되거나 이를 대체하여 사용되는 경우가 많음.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사실을 말하면 믿을 만한 메시지라고 생각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미디어에도 편향이 담겨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자신이 접하는 미디어 메시지에 어떤 편향이 담겨 있는지, 그 편향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그것이 갖는 핵심의는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는 비판적 탐구의 자세와 방법을 가르치는 것임. 이것이 바로 미디어 리터러시가 시민이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인 이유임.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핵심 원리(NAMLE, 2007) 1/2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우리가 받고 생성하는 메시지에 대한 적극적인 질문과 비판적 사고**를 요청합니다.”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학생의 관점을 다른 사람의 관점(이 글을 읽는 여러분 자신, 교사, 미디어 비평가, 미디어 전문가 등)으로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 학생들이 스스로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공유하지 않고 특정한 미디어 비평을 공유하는 것은 건강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실천이 아닙니다.
- 따라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비판적인 탐구 기술을 가르치기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비디오, 영화, 책, 또는 이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다른 교육과정 자료들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포함해야 합니다.”
- [인용 출처 표기] “The Core Principles of Media Literacy Education.” *National Association for Media Literacy Education*, Nov. 2007, [namle.org/resources/core-principals](https://namle.org/resources/core-principals). Accessed [date] (ex. “Accessed 6 July 2020”).

[출처] <https://hs-jeong.net/page/3/>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핵심 원리(NAMLE, 2007) 2/2

- 팩트와 팩트가 아닌 것을 가려내는 것을 가려내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팩트를 말하고 있는 미디어라고 해서 편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팩트를 말하면 믿을 만한 메시지라고 생각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 **팩트를 말하는 미디어에도 편향이 담겨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 **자신이 접하는 미디어 메시지에 대해 어떤 편향이 담겨 있는지,**
- **그 편향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 **그것이 갖는 함의는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는 비판적 탐구의 자세와 방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 **팩트체크 자체가 미디어 리터러시인 것처럼 오해될 수 있는 점에 대해 NAMLE에서 아주 명료하게 입장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 3. 미디어 리터러시의 핵심은 미디어 재현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과 대안 담론 생산이다.



# 대만의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기술 정보 및 미디어 리터러시'

어떤 키워드가 눈에 들어오시나요?

출처: 十二年國民基本教育課程綱要

<https://www.naer.edu.tw/eng/PageSyllabus?fid=148>

핵심 소양 프로젝트	핵심 소양 프로젝트 설명	국민 초등 교육 (E)	국민 중등 교육 (J)	고등 중등 학교 교육 (U)
B1 기호의 사용과 의사소통 표현	음성, 문자, 수, 신체 및 예술 등의 다양한 기호를 이해하고 사용하여 표현, 소통, 상호 작용함으로써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일상 생활과 일의 세계에 적용할 수 있다.	민등-E-B1 민등어의 기본적인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통해 일상 생활에서 민등어로 표현할 수 있다.	민등-J-B1 민등어 듣기, 말하기, 읽기 및 쓰기의 포괄적 표현을 통해 일상 생활의 표정과 의사소통이 상호작용한다.	민등-U-B1 민등어 표현 능력을 갖추어 일상 생활과 일의 세계에서 소통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다.
B2 기술 정보 및 미디어 리터러시	기술 정보 및 다양한 미디어를 잘 사용하고 관련 윤리 및 미디어 문해력을 길러 사람과 기술, 정보 및 미디어 간의 관계를 분석, 식별 및 비판할 수 있다.	민등-E-B2 민등어 미디어의 내용과 영향력을 이해하고, 실제적인 과학 기술 정보의 기본 역량을 통해 민등어를 배우기 위해 미디어 자원을 찾고 사용할 수 있다.	민등-J-B2 정보 검색 도구를 통해 민등어로 된 데이터를 수집 및 구성하여 학습 효과를 높이고 정보의 정확성을 구별하며 미디어 자원과 지역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할 수 있다.	민등-U-B2 다양한 미디어 도구를 사용하여 민등어의 학습을 심화하고, 미디어 정보의 읽기 및 비평의 과정을 통해 과학 기술 윤리 및 기타 생활에 대해 성찰할 수 있다.
C1 윤리적 실천과 시민의식	개인적 자아 및 사회 시민으로서의 윤리적 실천의 자질을 갖고, 점진적으로 사회적 책임과 시민의식을 육성, 공공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에 참여, 자연 생태계와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관심을 갖고 좋은 도덕적 행동을 보여준다.	민등-E-C1 민등어 학습을 통해 지역 문화의 전통적 미덕, 환경 보호 및 사회적 보살핌과 같은 주제를 이해함으로서, 개인의 도덕적 지식과 옮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민등-J-C1 민등어와 지역문화의 학습을 통해 삶의 도덕성과 시민의 책임의식을 키우고, 지역사회와의 참여를 통해 사회적 문제와 자연생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도덕적 사고와 실천의 시민적 성취를 향상시킨다.	민등-U-C1 민등어를 사용하여 공공의 문제를 파악하고, 윤리적 관행과 사회적 책임을 길러, 환경 보호 및 사회의 공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의 미덕을 알고 선해를 실천한다.



표 2 엘리자베스 토만의 미디어 리터러시 핵심개념 5개



Elizabeth Thoman

**CML**

Mission: Media Literacy

분석(소비자 측면) - 5개 핵심질문들	5개 핵심개념 (키워드)	제작(생산자 측면) - 5개 핵심질문들
누가 이 메시지를 만들었는가?	모든 메시지는 구성된다.(저자)	나는 무엇을 만들고 있는가?
이 메시지는 나의 주목을 끌기위해 어떤 창의적 기법을 사용했는가?	미디어 메시지는 그 자체의 규칙 속에서 창의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구성된다.(포맷)	나의 메시지는 포맷, 창의성, 테크놀로지에 대한 이해를 반영하고 있는가?
사람들이 메시지를 어떻게 달리 이해하는가?	동일한 메시지라도 사람들은 그것을 다르게 경험한다.(수용자)	나의 메시지는 수용자들에게 각기 다른 반응을 자아내는가?
이 메시지에는 어떤 가치, 라이프스타일, 관점들이 반영되어 있는가 또는 생략되어 있는가?	미디어는 내재된 가치 및 관점을 가진다.(콘텐츠)	내가 만든 미디어 콘텐츠는 내 자신의 가치, 라이프스타일, 관점을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제시하고 있는가?
이 메시지는 왜 보내졌는가?	대부분의 미디어 메시지들은 이익 혹은 권력을 얻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목적)	나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효율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있는가?

# 미디어 리터러시의 개념과 오개념

-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가 디지털 환경으로 발달함에 따라 다루는 영역과 주제가 확대되어왔습니다.
- 이에 따라 디지털 환경의 미디어 리터러시는 디지털 리터러시와 동의어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 그러나, 특히 한국의 상황에서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 기술의 도구적 활용이나 개인적 윤리 차원에서 논의되는 경향이 있어 구별이 필요합니다.

# 기술 발달과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변화

구분	영상사회	디지털 사회	지능정보사회
중심기술	영상	디지털	ICBM, 인공지능
특징	시각	디지털	초연결, 초지능
미디어 플랫폼	소수의 미디어	다수의 미디어	1인 미디어
이용자	수용자	생비자	창작자
관련 용어	비주얼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정보 리터러시 인터넷 리터러시	스마트 리터러시 데이터 리터러시 알고리즘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비판적 이해능력	미디어 접근 능력 미디어 생산 능력 미디어 참여 능력	비판적 이해 능력 미디어 생산 능력 미디어 소통 능력 미디어 협업 능력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키워드	비판적 시청 영상	미디어제작 디지털 참여	소통 연결 공유 협업 시민성

출처: 안정임·김양은·전경란·최진호(2017), 32쪽.



#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규정의 시대별 변화

시기 및 계기	미디어 리터러시 규정
1992년 미국 <미디어 리터러시 전국 리더십 컨퍼런스 (National Leadership Conference on Media Literacy)>	“미디어 리터러시란 시민이 정보에 접근하고, 정보를 분석하며,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정보를 생산하는 능력을 의미한다”(Aufderheide, 1993).
2004년 영국 오프콤(Ofcom: Office of Communication)	“미디어 리터러시란 다양한 맥락에서 커뮤니케이션 상황에 접근하고(access), 이해하며(understand) 창조하는(create) 능력을 의미한다”(Ofcom, 2004).
2018년 미국 전국미디어리터러시교육연합 (NAMLE: National Association for Media Literacy Education)	“미디어 리터러시란 모든 의사소통 수단을 기반으로 접근, 분석, 평가, 창조, 그리고 행동(ACT)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NAMLE, 2018).

출처: 김아미(2019), 49쪽.

#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 재현의 비판적 이해와 대안적 담론 생산을 모색합니다.

- 디지털 미디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곧 미디어 재현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 미디어가 생산하는 담론(사회적 가치와 힘을 지닌 말)을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비판적으로 이해하고(누구의 관점, 가치, 이해관계가 반영되거나 누락되었는가), 미디어를 통해 의미 있는 메시지를 만들어 사회적으로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 디지털 미디어의 참여 문화는 미디어를 통한 시민으로서의 참여와 행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 청소년 미디어 문화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셜 미디어, 유튜브, 게임 이용 등에 대해 청소년들의 소통과 놀이, 정체성, 즐거움, 디지털과 실세계에서의 평판, 디지털 환경의 위험과 기회 등에 대해 비판적 이해와 성찰을 위한 대화를 이끌어내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합니다. (성인들에게도 필요할까요?)
- 사실을 말하면 좋은 미디어이고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좋은 미디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미디어 리터러시가 아닙니다. ('따옴표 저널리즘'은 사실을 말하지만 좋은 미디어가 아니며,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연구 없이 사실과 의견을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 비판적 리터러시와 미디어 리터러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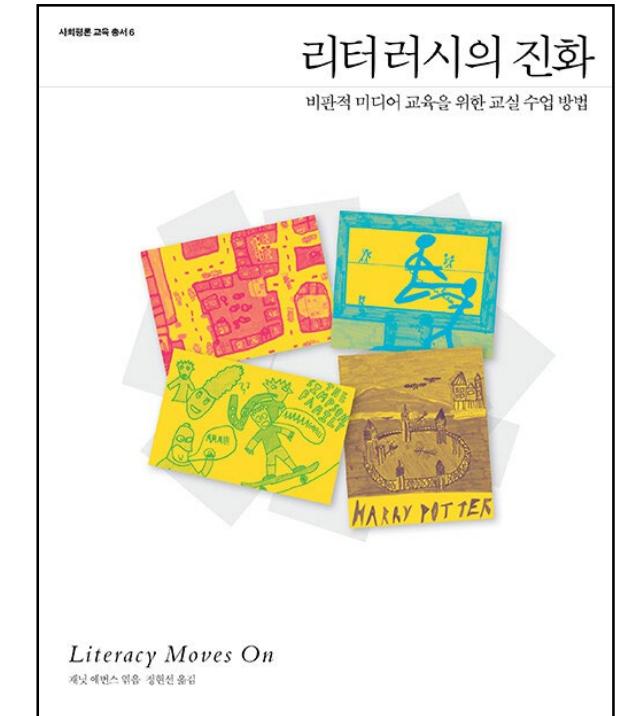
- 미디어가 만들어낸 신어의 의미 이해는 단지 ‘사전적 의미’를 확인하는 활동에 그치지 않고, **삶 속의 텍스트가 된 미디어 재현을 이해하는 비판적 의미 이해와 성찰의 과정**이 될 필요가 있다.
- 단어의 의미 찾기 활동은 **디지털 미디어 사회의 맥락 속에서 생겨난 문화적 현상**으로 이해하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유머와 혐오의 미묘한 의미 효과를 분석하고 **성찰**하기 위한 출발지점에 놓일 수 있다.

# 비판적 리터러시(critical literacy) 1/2

- 남아메리카의 빈곤 지역에서 이루어진 파울루 프레이리(Freire)의 정치적인 작업에서 비롯됨.
- 텍스트들이 특정한 맥락에서 특정한 의미 효과를 내기 위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 탐구하는 것을 뜻함.
- 언어와 이미지들은 사회적 역학 관계와 연관되어 있고, 작가, 연출가, 광고 제작자, 일상적으로 대화를 하는 사람 등 모든 이들은 특정한 말과 이미지를 선택해 의미를 생산한다. 이들이 생산하는 텍스트는 듣는 사람, 읽는 사람, 보는 사람들을 수용자로서 배제하거나 포함할 수 있고, 다른 방식으로 위치 지울 수도 있음.
- 비판적 리터러시는 다양한 텍스트에서 당연하게 간주되는 것들에 대해 질문하는 것으로, 텍스트를 생산할 때 내리는 결정들이 수용자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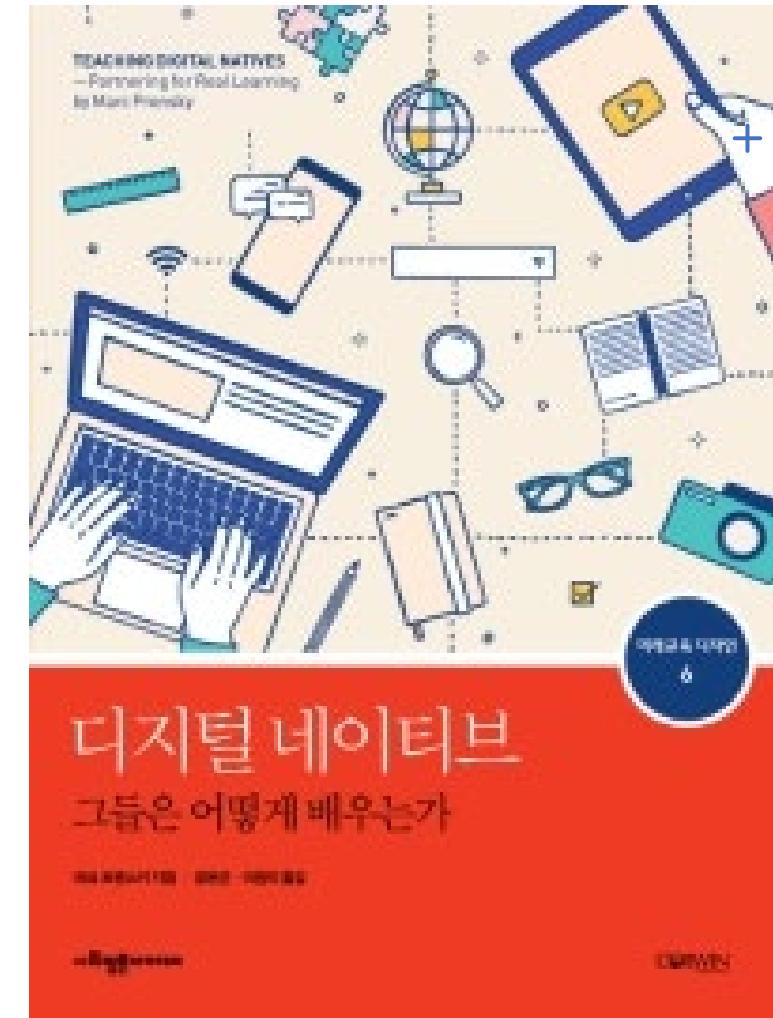
# 비판적 리터러시(critical literacy) 2/2

- 사람들로 하여금 **텍스트의 코드를 해독하고, 의미를 생산하고, 텍스트를 사용하도록 할 뿐 아니라, 그것들이 어떻게 작용하고 세상에 어떤 작용을 하게 되는지를 고려하면서 텍스트를 분석하도록 함.**
- 더 큰 목적은 사람들을 **사회의 능동적인 설계자이자 주도자로서 성장시키는 것.**
- 호주에서는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어린이들이 텍스트에 대한 분석적 접근을 배우고, 이에 따라 장난감 카탈로그, 음식물 포장지, 주변에서 매일 볼 수 있는 일상적 텍스트들,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 어린이 문학작품 속의 소년과 소녀들, 출판사가 어린 독자들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과학적 사실들’의 문법과 어휘를 고려하는 학습을 함.  
⇒ **텍스트를 읽고 사용하고 감상하는 법만이 아니라, 텍스트에 ‘문제를 제기하고’ 해체하는 법을 배우는 것.**



# ‘적절한’ 학습 vs. ‘실제적’ 학습

- 학습은 단지 우리가 가르치려고 하는 것을 학생들이 알고 있는 것과 적절하게 연결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학습이 아니라, 세상의 유용한 것을 배우는 데 있어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하고 있는 것을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실제적’ 학습이 되어야 한다(Prensky, 2019: 141).
- 이런 관점에서 단어의 의미 찾기에 대한 학습은 학생들이 살아가면서 지속적으로 배워 나가야 할 세상에 대한 이해와 연결될 수 있는 ‘실제적’ 학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사회-비판적 리터러시의 필요성

- 사회-비판적 리터러시 이론에서는 전통적인 발달 이론이 미성숙과 무능력의 차원에서 성숙과 능력의 차원으로 수직 상승하는 변화로서 발달을 바라보는 것과는 달리, **한 개인의 실천을 가로지르는 발달이 횡적으로도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확장된 의미의 발달은 학교와 같은 공식적인 학습 공간만이 아니라 학교 밖의 다양한 실천에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Gutiérrez, 2008: 149).
- 이러한 사회적 차원의 발달과 성장은 현실을 변화시키려는 변혁적 목적을 지닌 담론과 그것을 체화한 글쓰기, 독서, 공연 활동 등의 실천들에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 이러한 리터러시 교육이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러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Kris Gutiérrez

## 4. 미디어 이미지의 의미를 어떻게 비판적으로 읽을 수 있을까?

#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교수학습자료: 초등 5-6 학년 국어 (정현선 외, 교육부, 2018)



## 수업의 흐름

이미지도 말을 해요		이미지로 말해요					영상으로 말해요				
1	2	3	4	5	6	7	8	9	10		
사진 읽기 (질문하 기)	의미 확인하기 (사진을 읽는 방법)	찍는 범위에 따라 달라지는 사진의 의미 이해하기	목적이나 주제를 고려하여 사진 찍기 (1)	대상을 보는 각도에 따라 달라지는 사진의 의미 이해하기	목적이나 주제를 고려하여 사진 찍기 (2)	사진으로 찍을 장면을 정하고 스토리 보드 구상하기	사진 찍기 및 스토리 보드 완성하기	영상 제작을 위한 준비 (역할 분담, 시나리오, 기능 탐색)	영상 제작하기		

# 핵심 활동

## 이미지도 말을 해요

1 2

사진  
읽기  
(질문하  
기)  
의미  
확인하기  
(사진을  
읽는  
방법)

### [활동1] 사진을 보고 자신의 생각 적기

- : 사진에 나타난 정보를 설명하고 그 정보에 대하여 궁금한 내용 정리하기
- : 사진작가에게 질문하고 싶은 내용 정리하기

### [활동2] 친구들과 생각을 공유하며 질문에 대한 답 적기

- : 사진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질문 고르기
- : 사진작가의 입장이 되어 고른 질문에 대한 답 적기

### [활동3] 사진이 전하고자 하는 의미 생각해 보기

- : [활동1], [활동2]를 토대로 사진이 전하고자 하는 의미 추측하기

### [활동4] 사진의 맥락(기사, 홍보 영상)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사진의 의미 재확인하기

- : 사진이 수록된 기사 및 관련 영상 제공하기
- : 사진의 맥락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사진의 의미 수정하여 적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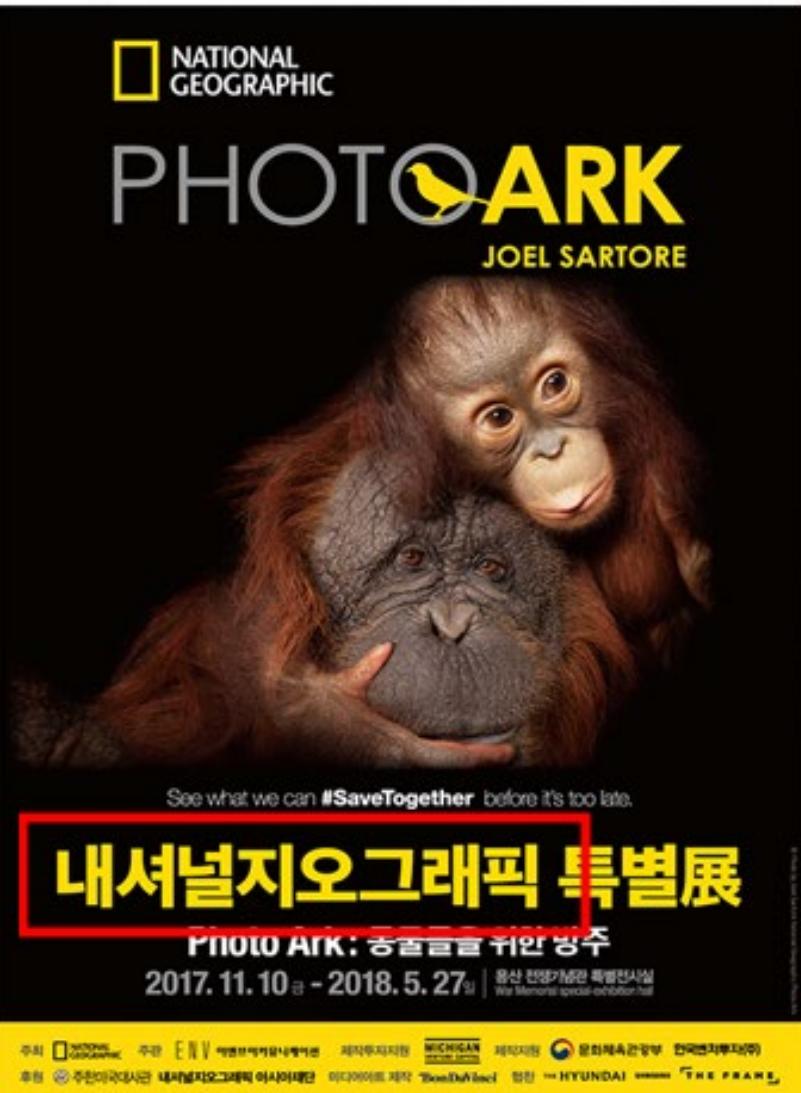
### [활동5] 사진을 찍은 의도를 고려하며 다시 사진 읽기

- : 사진이 전하고자 하는 의미가 사진의 어떤 부분에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 [활동6] '사진의 의미를 읽는 방법' 정리하기



<https://youtu.be/OUW4M6QTOCw>



국내 사진전 사상 최대관람인원 기록을 세운 바 있는 국내 명품 사진전 '내셔널지오그래픽 전'이 5월 27일(일)까지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특별전을 선보인다.

지구의 아름다운 모습과 미지의 탐사, 발견을 다룬 기존 전시와는 확연히 다른 주제로 2년 만에 돌아온 내셔널지오그래픽 특별전시 '내셔널지오그래픽 특별전 Photo Ark 동물들을 위한 방주'는 친근한 동물들을 비롯해 흔히 만날 수 없었던 또는 지금까지 존재 자체도 몰랐던 다양한 생물들의 사진을 만날 수 있다. 더 나아가 다양한 생물들의 사진을 눈과 가슴으로 만나며, 우리와 지구를 공유하는 다양한 생물들의 존재가치와 보호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는 특별한 전시다.

전시 부제인 'Photo Ark'는 130년간 지구를 기록하고 발견, 탐험해온 내셔널지오그래픽과 사진작가 조엘 사토리(Joel Sartore)가 10여 년 전부터 진행해온 공동 프로젝트다. 본 프로젝트는 동물들을 위한 방주란 해석처럼 너무 늦기 전 많은 사람들에게 위험에 처한 생물 종에 대해 알리고, 경각심을 일깨워 멸종 위기의 생물 종을 보호하며 동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시작되었다. 사진작가 조엘 사토리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약 1만2000종에 대한 활영 목표를 향해 지금 이 순간에도 카메라에 다양한 생물 종을 담고 있다.

포토아크 프로젝트를 국내에 처음 소개하는 '내셔널지오그래픽 특별전 Photo Ark: 동물을 위한 방주'에는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들의 사진을 비롯해 처음 접하지만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생물 종, 동물원에서 만났던 친근한 동물들이지만 보호가 필요한 동물 등 생물 500여 종을 만날 수 있다.



## 학생들은 이렇게 했어요!

- 어떻게 이런 행동으로 찍게 되었나 생각해 본다.
- 어디서 찍은 건가를 생각해 본다.
- 인물의 행동 등을 자세히 살펴본다.
- 사진의 배경, 겉모습을 본다.
- 사진에 잘 보이지 않는 작은 부분에도 관심, 궁금증을 가진다.
- 사진을 어떤 의도로 찍었는지 왜 찍었는지 생각을 한다.
- 궁금한 점을 물어보거나 질문하며 작가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본다.
- 사진의 표정, 몸짓, 배경 등을 살펴본다.
- 의미가 뭔지 생각해서 적어 본다.
- 찍은 작가나 의미를 아는 사람에게 물어본다.

# 미디어 리터러시는 **탐구와 반복 학습**을 필요로 합니다.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핵심 원리(NAMLE, 2007)
  1.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우리가 소통하는 메시지에 관한 적극적인 탐구와 비판적 사고를 필요로 한다.
  2.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리터러시, 즉 읽기와 쓰기의 개념을 모든 형태의 미디어로까지 확장한다.
  3.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모든 연령대의 학습자를 위한 기능을 구축하고 강화한다. 리터러시의 기능은 통합, 상호작용, 반복 등 연습이 필요하다.
  4.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을 기르기 위해 풍부한 정보를 바탕으로 성찰적이고 참여하는 활동을 촉진한다.
  5.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미디어가 문화의 일부이며 사회화의 동인으로 기능한다는 점을 인식하게 한다.
  6.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사람들이 미디어 메시지에서 자신만의 의미를 구성하기 위해 개인의 기능, 신념, 경험을 사용하도록 촉진한다.

#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를 위한 개인의 디지털 탐구 모델

## Personal Digital Inquiry for Digital Media Literacy (PDI-DML)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르네 홉스)  
Digital media literacy  
competencies  
(Renee Hobbs)



Renee Hobbs

are advanced through  
regular and  
intentionally designed  
opportunities for  
inquiry-based  
learning  
(Julie Coiro)



Julie Coiro

탐구 기반 학습을 위해 정기적이고 의  
도적으로 설계된 기회(줄리 코이로)  
를 통해 진전된다.

## • 호주 영어과 교육과정(일부)

#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비판적 미디어 리터러시



English: Sequence of achievement: F-6

성취기준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b>생산 양식 (말하기, 쓰기, 만들기)</b>	<p>학생들은 언어 기능이 아이디어를 연결하고 순서를 매기기 위해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해한다. 언어가 주제에 대한 감정과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이해한다. 학생들의 텍스트는 표현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글과 이미지, 몇몇 세부 경험, 사건, 정보, 아이디어, 인물들을 포함한다.</p> <p>학생들은 친숙하거나 그렇지 않은 청중들을 고려하여 다양한 텍스트를 만든다. 수업과 그룹 토론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질문을 하고, 유용한 피드백을 제공하며, 발표한다. 문법에 대한 이해를 보여주고 글의 목적과 맥락에 맞는 어휘와 구두점을 선택한다. 단어의 철자를 정확하게 쓰기 위해 자음과 모음 클러스터, 고빈도 단어 등 문자-소리 관계에 대한 지식을 활용한다. 글을 다시 읽고 편집하며, 그들의 작품이 적절한 어휘, 구조, 의미를 확인한다. 정확하게 형성되고 크기가 일정한 결합 글자를 사용하여 글을 쓴다.</p>	<p>학생들은 일관성을 갖추어 글을 쓰며, 글에 세부사항을 추가하기 위해 언어적 특징을 사용한다. 텍스트로 정보를 바탕으로 의견을 표현하는 방법을 이해한다. 이미지와 세부내용이 어떻게 주요 아이디어를 확장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보여주는 텍스트를 만든다.</p> <p>학생들은 다양한 수용자들을 위해 아이디어를 설명하기 위해 구조화된 텍스트를 만든다. 발표하고 상황에 따라 언어를 달리하면서 수업과 그룹 토론에 적극적으로 기여한다. 문법에 대한 이해를 보여주고, 다양한 자료에서 어휘를 선택하며 정확한 철자와 구두점을 사용하고, 그들의 작품을 다시 읽고 편집하여 의미를 향상시킨다.</p>	<p>학생들은 아이디어가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언어 기능을 사용한다. 하나의 텍스트에 대한 여러 관점을 발견시키고 설명하며, 다양한 자원으로부터 정보, 아이디어, 이미지를 선택한다.</p> <p>학생들은 다양한 목적과 청중들을 위해 상상력이 풍부하고 유익하며 설득력 있는 텍스트를 만든다. 정해진 목적을 위해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는 프레젠테이션을 한다. 다른 관점을 고려하여 수업 및 그룹 토론에 적극적으로 기여한다. 글을 쓸 때는 다양한 문장 유형을 사용하여 문법에 대한 이해를 보여준다. 특정한 어휘를 선택하고 정확한 철자와 구두점을 사용한다. 응집력 있는 구조와 의미를 위해 작품을 편집한다.</p>	<p>학생들은 언어 특징과 언어 패턴이 무언가를 강조하기 위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이해한다. 관점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언어 특징과 이미지를 어떻게 선택하여 사용했는지 설명한다.</p> <p>학생들은 다양한 목적과 수용자들을 위해 주요 아이디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상세한 텍스트를 만든다. 다양한 효과 전략을 사용하여 발표하고 수업 및 그룹 토론에 적극적으로 기여한다. 문법에 대한 이해를 보여주고, 글쓰기의 응집력과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고려된 어휘를 선택한다. 명확성을 위해 정확한 철자와 구두점을 사용하고 기준에 따라 편집 선택을 하고 설명한다.</p>

# 영상 이미지 분석 교육 방법

- 영국 영화연구소에서 초중등학교의 영상매체교육을 위해 개발한 교사용 가이드북인 『중등학교 교사를 위한 영상 이미지 교육 가이드(Moving Image in the Classroom: A Secondary Teachers' Guide to Using Film and Television』 (BFI, 2000)과 『3-11세 어린이를 위한 영상 이미지 교육 가이드(Look Again!: A Teaching Guide to Using Film and Television with Three- to Eleven-Year Olds)』 (BFI, 2003)에서 제시한 영상언어교육의 기본적인 교수법 9가지.

[출처] 최미숙 외 (2011) (초판). 국어교육의 이해. 사회평론사 (11장. 매체와 국어교육).

기본 교수법 (Basic Teaching Techniques)	학생들에게 할 핵심 질문 (Key Questions)	학습 목표 (Learning Objectives)
<p><b>1. 프레임별로 멈춰 보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짧은 영상 이미지 텍스트 혹은 그 일부(60초 정도의 길이)를 멈춰 놓고 보면서 토론하기</li> <li>멈춰진 이미지 속에서 무엇이 보이는지, 그 이미지의 요소들이 하나의 프레임 안에 어떻게 위치 지워져 있는지, 눈에 보이는 것에 조명과 색채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토론</li> <li>카메라와 피사체 간의 거리, 카메라 앵글, 하나의 <u>숏이</u> 진행되는 동안 카메라의 <u>움직임에</u> 대해 <u>이야기해</u> 본다.</li> <li>얼마나 많은 <u>숏이</u> 존재하는지, 그리고 <u>숏이</u> 연속해 만든 장면이 어떻게 정보나 아이디어나 인상을 만들어내는지 <u>이야기해</u> 본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멈춰진 <u>숏에서</u> 무엇을, 혹은 누구를 볼 수 있는가? (그 장면은 왜 그렇게 구성되었나? 다르게 구성 하였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li> <li>카메라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몇 대의 카메라가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 카메라를 그렇게 위치 지운 이유는 무엇일까? 다른 곳에 카메라를 놓았다면 어떤 차이가 생겼을까?)</li> <li>카메라가 한 장면에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갈 때는 언제인가? (두 장면은 어떻게 다른가? <u>숏의</u> 순서가 달라졌다거나, 특정한 <u>숏이</u> 삭제되었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li> <li>시간, 장소, 배경 등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배경/조명은 <u>숏의</u> 분위기와 의미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li> <li>등장인물의 의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등장인물의 의상과 몸짓은 어떤 인상을 주는가? 의상은 인물의 지위와 <u>인물간의</u> 관계에 대한 정보를 주는가?)</li> </ul>	<p>학생들이 배워야 할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각 이미지의 모든 요소는 의미를 담을 수 있다.</li> <li>시각 이미지는 다른 텍스트에서와 마찬가지로 ‘읽힐’ 수 있다.</li> <li>이미지 내 요소들의 위치, 사용된 색채와 조명은 모두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li> <li>카메라의 거리(예: 클로즈업, 롱 <u>숏</u> 등), 카메라 앵글과 카메라의 움직임은 모두 의미에 영향을 미친다.</li> <li><u>숏의</u> 수와 순서가 의미에 영향을 미친다.</li> </ul>
<p><b>&lt;후속활동&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토리보드나 영상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장면의 순서를 바꾸거나 몇 가지 <u>숏을</u> 삭제해 본다.</li> </ul>		

# 4. 마무리

- <https://forms.gle/T8pNPmp6Ez3oZhs46>
- (설문에 응답해 봅시다.)

1. 지난 10년간 사고사망자 수의 변화는? \*

-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 유사한 수준을 유지해 왔다
-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2.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를 OECD국가들의 세율과 비교하면? \*

- 높은 편이다
- 비슷한 수준이다
- 낮은 편이다

3. SNS에서 사진과 이름을 훔쳐 타인 행세를 할 시 형사 처벌 가능하다 \*

- 사실이다
- 사실이 아니다

4. 화교들은 화교 특별 전형으로 의대를 갈 수 있다 \*

- 사실이다
- 사실이 아니다

5. 우울증 약 먹으면 취업에 불이익이 생긴다 \*

- 사실이다
- 사실이 아니다

# 디지털 리터러시 문제 부각

OECD 2018 PISA 읽기 결과 분석 자료에서,

- ① 우리나라 학생의 읽기 성적은 높은 편이나(514점, OECD 평균 487점)이나 사실/의견을 판단하는 능력은 매우 저조하고(25.6%, OECD 평균 47%),
- ② 디지털 접근성은 높고 교육과정에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 내용의 비율이 높은 편이나(60%), 학교에서 정보의 주관성·편향성 교육 기회는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한국 49.1%, OECD 평균 54.5%).

## [문해력 리포트] ② 한국 청소년 '디지털 문해력'마저...OECD 바닥권

송고시간 | 2021-12-18 08:00

전자기기 이용 능력 뛰어나지만 미디어 콘텐츠 판별 능력은 부족  
"공교육 통해 어릴 때부터 디지털 정보 진위 판단하는 힘 길러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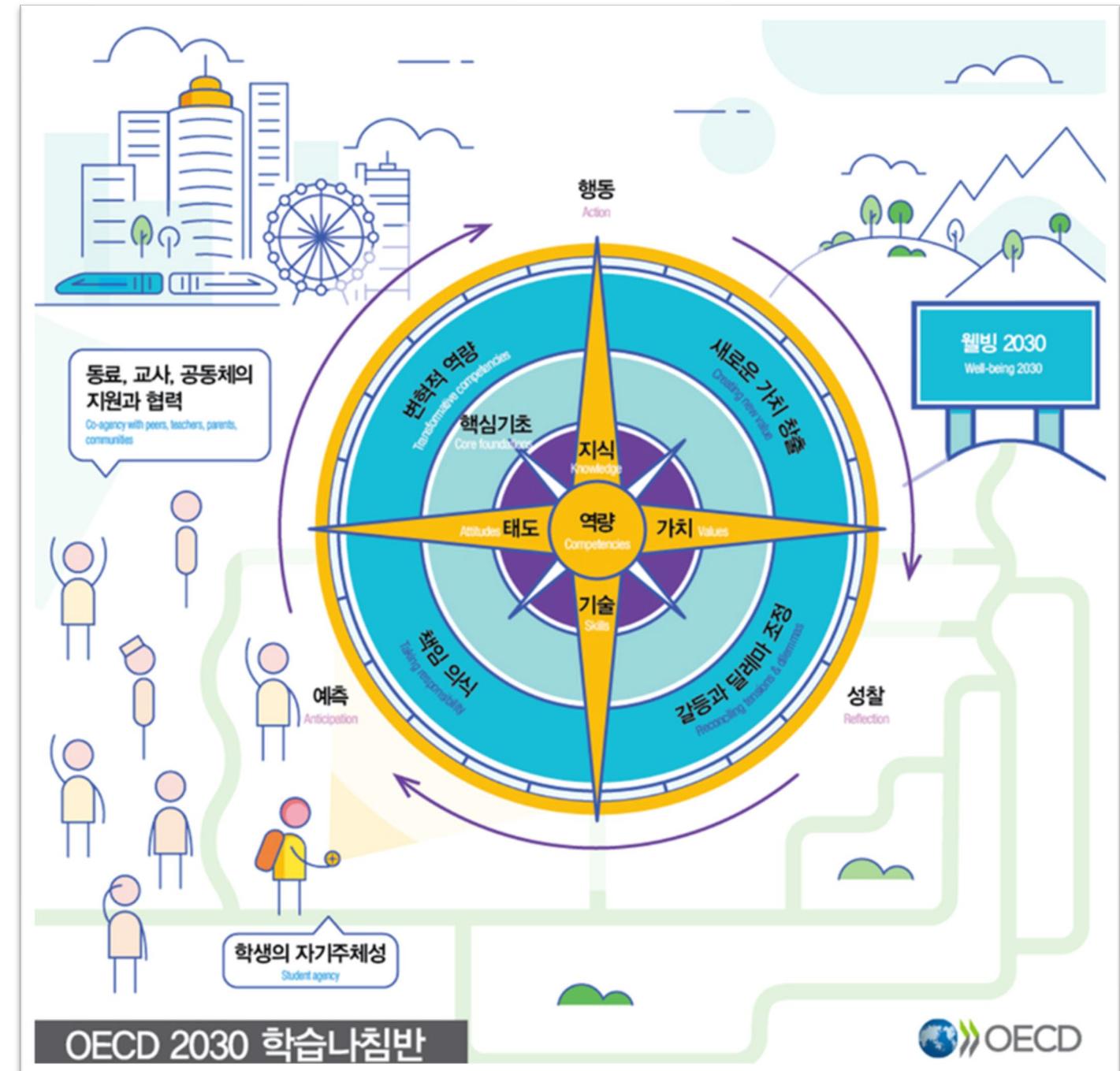


디지털 교육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권선미 기자 문혜원 인턴기자 = "청소년들의 디지털 기기 이용 능력은 높아지고 있지만, 스스로 문서를 타이핑해 정리하고 필요한 정보를 판별하는 능력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정보 검색 및 진위 판별, 문서 제작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김아미 경인교대 미디어교육연구소 연구원)

# ‘OECD 2030 학습 나침반’의 시사점

도움을 청하면 돌아보며 협력할 수 있는 지근거리에 있으나 각자 다른 방향을 바라보며 떨어져 있는 개별적 존재들이 나침반을 들고 있는 학생의 모습.



# 어린이의 디지털 리터러시의 모듈식 정의 제안 (unicef, 2019.8.)

*Digital Literacy for Children: Exploring definitions and frameworks*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Scoping Paper No. 01) (UNICEF), New York, (2019 ).

‘활동의 목적’에  
‘놀이하기’를 명시함.

Definition	Building blocks	Notes
Children's digital literacy is the set of knowledge, skills, attitudes, strategies, values and awareness that are required ...	Objects of the definition	Knowledge, skills and attitudes, strategies, values and awareness are all included
... to search for, analyse, evaluate and manage information, communicate, collaborate, create and share content, build knowledge, solve problems...	Activities covered	This list could be enlarged when new activities will emerge
... safely, effectively, efficiently, critically, creatively, autonomously, flexibly, ethically, reflectively and appropriately ...	Modes of operation	These refer to “how” children should ideally use/interact with ICTs and digital media
...with respect to their age, local language, local culture, and socioeconomic context...	Age and context specificities	This represents an advance with respect to existing definitions
... for playing, civic participation, learning, socialising, consuming, working ...	Purpose of activities	Playing is added here in a prominent place
... in digital and connected environments and societies.	Reference to digital societies	This is more than “when using ICT tools”

# 핀란드의 ‘현상(phenomenon)’ 기반 멀티리터러시 학습

- 다양한 정보 출처의 활용
- 정보 출처와 정보의 비판적 평가
- 다양한 텍스트를 통한 정보 생산, 발표와 공유
- 평등과 공정, 웰빙과 안전, 민주주의, 지속가능한 미래, 적극적인 시민성을 지지하기 위해 미디어를 사용하기

Kangas, M., & Rasi, P. (2021). Phenomenon-based learning of multiliteracy in a Finnish upper secondary school. *Media Practice and Education*, 22(4); 342-359. DOI: [10.1080/25741136.2021.1977769](https://doi.org/10.1080/25741136.2021.1977769)

리터러시를 바라보는 기호학적 전환뿐 아니라 사회학적 전환이 필요함.

문해 교육은 보편적인 개인의 심리적 기능을 강조하는 기능주의에서 벗어나,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되는 의미의 이데올로기적 특성과 가치 편향성을 탐구할 수 있어야 함.